

## 한반도 전쟁 위기와 미·중 제국주의 패권 쟁투

홍수천

지배자들 간의 평화회담과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올 수 있는가? 무엇보다 미 제국주의가 전쟁 위기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까? 이를 믿고 우리가 제국주의와의 투쟁,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일시적으로라도 접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투쟁을 유보하고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 속에서 그 같은 환상을 유포하는 데 앞장 설 것인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제국주의 간 패권 쟁투와 군사주의를 추동하는 현 단계 자본주의를 타도하지 않고서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한반도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자본주의 지배계급들을 타도하는 일련의 혁명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보는 우리는 앞서,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제국주의 대국들 - 무엇보다도 미 제국주의 - 의 제재 압박과 전쟁 위협에 반대하며, 이에 맞서 유보 없이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지금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 중단을 요구하며, 합동 군사훈련과 같은 미국 - 그리고 그 제국주의 동맹국인 남한과 일본 - 의 군사 도발에 반대하는 대중적 항의투쟁을 호소한다.

그런데 운동진영 일각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군사적 도발 반대, 전쟁 반대 투쟁이 북미 '정상' 회담에 의한(또는 남·북·미·중 '정상'에 의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에 찬성, 지지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혁명적 노동자계급은 대중들 속에서 이러한 제국주의적 '평화'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는 노동운동 내 평화주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 같은 평화주의적 환상 유포는 특히 유해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 반대 투쟁이 자본주의 철폐 투쟁으로, '자'국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투쟁으로 확대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결국은 전쟁 반대 투쟁 그 자체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지금 지배자들 간에 추진되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이 왜 휴지조각에 불과한지 현 시기 전쟁 위기의 본질적 성격을 직시해야 한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전쟁을 막아줄 거라고 한다. 그런데 현 시기 '한반도 전쟁'이란 곧 미·중 간의 전쟁이다. 미중 간의 전쟁 없는 오로지 미국( 및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이란 상상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다고 할 때 중국과의 전쟁을 불사하지 않고, 예를 들어 아프간, 이라크 침공하듯이 할 수 있을까? 자신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는 북한에 대한 침공을 중국이 그냥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전혀!

한반도 전쟁 위기는 미중 간의 전쟁 위기와 뗄 수 없는 관계이자, 사실상 미중 간 전쟁 위기의 일부다. 한반도는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신 냉전', 즉 제국주의 간 패권 쟁투에서 미중 서로 간에 물러설 수 없는 (남중국해와 함께) 핵심 각축장 중의 하나다. 이런 조건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전쟁 위기, 그리고 그것을 일부로 하는 미중 간 전쟁 위기를 해소시켜줄 것이라고 믿어야 할 것인가?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환상에 기댄 평화협정 체결, 군축 요구 등 평화주의 운동이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을 '자'국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내란으로 전

화시키라”는 레닌주의적 가치를 지켜두고 전쟁 반대 투쟁을 자본주의 타도 투쟁과 뗄 수 없이 결합시켜야 한다.

노동운동 내 민족주의 세력들은 현 시기 전쟁 위기의 성격을 바로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의 이름으로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자본주의와의 투쟁과 분리시킨다. 이들 민족주의 세력들은 ‘자’국 지배계급, 즉 이미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로 상승한 남한 지배계급과는 투쟁하지 않는(나아가 지배계급 분파와 함께 하는) ‘반미 자주!’ 기치로 노동자계급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들은 현 시기 전쟁 위기 속에서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적 임무를 부정하고 있다. 제국주의 간 패권 쟁투와 제국주의 전쟁에서 남·북한 노동자계급과 미국 노동자계급, 중국 노동자계급이 ‘자’국 지배계급의 패배와 국제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함께 어깨 걸고 싸워야 할 임무에 반대하여 ‘자’국 정부와 함께 하는 애국주의와 배외주의로 빠져들고 있다.

또 이들은 현 시기 미중 간 패권 쟁투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제국주의의 봉쇄 전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중국을 방어한다”는 논리로 제국주의 양대 진영 중 한 쪽을 지지하여 사회제국주의 입장에 서고 있다. 중국을 여전히 모종의 노동자국가, 사회주의로 보고 싶어 하는 소부르주아적 반제국주의와 철저히 단절하고,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적 반제국주의로 결집해야 한다.

\* \* \*

이하에서는 중국이 왜 제국주의인가를 설명해주는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강 제국주의 미국의 패권에 대한 신흥 강대국 중국의 도전은 단지 정치·군사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 군사적 패권 다툼의 근거에는 미국 독점자본의 우위에 도전하는 중국 독점자본의 세계 재분할 쟁투가 있다. 미 중 독점자본 간 역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치를 살펴보자.

1. 세계 상위 2,000개 대기업 리스트를 매년 작성하고 있는 <포브스 글로벌 2000 (Forbes Global 2000)>을 보면, 2003년에서 2017년 사이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 세계 상위 2000 기업 - 국가별 분포 (2003년과 2017년)

	2003년		2017년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미국	776개	38.8%	565개	28.2%
중국	13	0.6%	263	13.1%
일본	331	16.5%	229	11.4%
영국	132	6.6%	91	4.5%
프랑스	67	3.3%	59	2.9%

캐나다	50	2.5%	58	2.9%
독일	64	3.2%	51	2.5%
남한	55	2.7%	64	3.2%
인도	20	1.0%	58	2.9%

미국이 계속 최강이지만, 그 비중은 2003년 776개 기업(38.8%)에서 2017년 565개 기업(28.2%)로 하락한다. 비슷한 하락 추세가 구 제국주의 대국들인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도 나타난다. 반면 중국은 2017년에 와서 263개 기업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제2위(13.1%)로 올라선다.

2. 이 같은 경향은 세계 상위 500대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는 <포춘 글로벌 500 (Fortune Global 500)>에서도 볼 수 있다.

### 세계 상위 500 기업 - 미국 대 중국 (2001년과 2017년)

	미국		중국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2001년	197개	39.4%	12개	2.4%
2017년	132개	26.4%	115개	23.0%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수가 2001년 197개에서 2017년 132개로 감소한다. 반면 중국은 12개에서 115개로 극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세계 2위로 미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3. 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억만장자/슈퍼리치를 가진 나라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Hurun Global Rich List> 2017년 호에 따르면, 609명의 억만장자가 중국인인 데 비해 미국인 억만장자는 552명이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2017년 <Forbes Billionaire List>는 미국이 여전히 앞선 것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중국 독점자본가들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 565명, 중국 319명 [홍콩 67명을 여기에 포함하면 386명], 독일 114명 등).

4. 자본 수출이 대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치 또한 중국이 제국주의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준다.

### 제국주의 열강의 해외직접투자 (1990년, 2000년, 2016년)

나라	해외직접투자액 (단위 : 천만 달러)		
	1990년	2000년	2016년

미국	731,762	2,694,014	6,383,751
일본	201,441	278,442	1,400,694
영국	229,307	923,367	1,443,936
독일	151,581	541,866	1,365,375
프랑스	112,441	925,925	1,259,385
중국	4,455	27,768	1,280,975
러시아	-	20,141	335,791

2000년 이후 중국의 자본 수출(홍콩의 수치는 제외하고서)이 급격히 증가하여 미국을 제외한 여타 제국주의 열강들의 자본 수출액에 필적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5. 그 결과, 중국 독점체들은 세계 시장에서 ‘큰 손’으로 자리 잡았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최대 투자자가 되고 있고, 유럽연합(EU)의 구 제국주의 국가들에도 중국의 직접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2010년 이후 유럽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을 넘어서서 역전을 이루었다.

6. 전 세계 자본주의 가치 생산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2015년에 미국을 앞질렀는데 이 점은 특히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국이 신흥 대국으로 부상하는 추세를 극명히 보여준다. 전 세계 산업 생산량에서 미국이 점하는 비율은 2000년 25.1%에서 2015년 17.7%로 감소한 데 반해 중국의 비율은 6.5%에서 23.6%로 증가했다.(서유럽은 12.1%에서 9.2%로 감소했다). 세계 무역량에서도 미국의 비율은 2001년 15.1%에서 2016년 11.4%로 감소한 데 반해 중국은 이 기간에 4.0%에서 11.5%로 증가했다.